7/10/22

“믿음과 행복” (베드로 전서 1:6-9)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과 행복과 행복 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행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 중에 하나는, 다 같이 행복해 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 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경험과 생각과 삶의 환경을 다 각기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배우고, 일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행복해 지기를 원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행복해 지는 삶을 살지는 못한다고 하는 사실 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 질줄 알고 열심히 돈을 모으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그 많은 돈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나 권력도 마찮가지 입니다.

영어의 단어 “행복” – Happiness는 원래 Hap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13세기 때부터 쓰여지기 시작을 했는데, 원어의 뜻은 Happen과 같은 어원, 의미 입니다. 그레서, happiness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를 만족 시키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일이 생기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만족하고, 즐거워지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 – 이것이 어원적인 행복의 의미 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또 다른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진정된 삶의 기쁨, 진정된 의미에서의 행복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볼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환난과 근심 속에서도 말할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디고 하는 –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경험할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닭는 수양이나 고행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복을 경험할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까지도 행복해 질수 있다고 하는 말씀 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금 황당하게 느껴질수 있는 행복의 개념 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행복해 질수 있는가?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육적인 삶은 굉장히 중요 하지요 – 먹고, 입고, 자고, 일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하는 – 우리가 눈으로 보며 하는 모든 일들이 중요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구원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속에 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바로, 삶의 여건과 환경이 어떠하던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운 삶인 것 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서는 기원후 AD 60년대 초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서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그 당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 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더 건고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서를 보면, 베드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입니다. 환난과 고통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지만 –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라 – 이것이 사실, 베드로 서의 중심적인 말씀 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베드로 서가 AD 60년대 초가 아니라 몇년 후인 AD 64년쯤 쓰여졌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박해는 사실, AD64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 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AD 64에 로마에서 큰+ 불이 나지요. 5일간 불은 계속 되었는데, 이 화제로 인해서, 로마가 거의 다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한 가지 설은,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인들의 교세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지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역사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그때부터 아주 가혹한, 국가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어느 곳에서도 전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자유롭게 세울수가 있었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과 박해를 당했지만은, 그런것들은 다 지역적인 문제들이였습니다. AD 64년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Colosseum – 원형 극장에 – 가보신 교우님들이 계실텐데, 굉장히 넓지요. 로마 사람들은, 그 지하에 기독교인들을 가두고, 기독교인들을 자신들의 재미 – 오락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원형극장에 끌어내서, 검투사와 싸움을 시켜 죽게 한다던지, 아니면 사자들을 풀어서 기독교인들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즐기는 그런 일들을 로마 사람들이 했지요. 이렇게,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고, 많은 신앙인들이 로마의 정권을 피해서 지하 도시들을 만들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박해는, 250년간 계속 되다가 Constantinople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6절에서 말하는 ‘시험과 근심”아닐까 생각 합니다. 여기서의 “시험과 근심은” 우리들이 지금 살면서 생겨지는 시험들과 근심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근심과 시험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수 있을까, 이 밤이 지나면, 나는 내일 새 날을 맞이 할수 있을까? 나의 가족들은 오늘도 다 안전하게 살수 있을까? – 이런 차원의 시험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신앙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시험과 근심”들이 있지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그런 것들과 비교할수는 없지만, 우리들에게도, 우리들만의 어려움이 있고, 시험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되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은, 우리들도 삶의 근심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때, 좌절하거나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시는 은혜로 인해 기뻐할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험과 근심”속에서도 기뻐할수 있고 행복해질수 있습니까? 가끔씩,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해 질까” – 그런 질문 입니다.

우리들은, 역사적으로 불때, 초대교회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며 감동적인 삶을 산 수 많은 사람들을 볼수 있지요. 언젠가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000년도 초에, 저는 여러번, 인도의 Calcutta를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Teresa 수녀님께서 세우신 Missionaries of Charity 단체가 있는데, 제가 연합감리교단 선교부에서 사역 하면서, Missionaries of Charity와 협력 선교를 위해 회의를 하러 여러번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회의도 했지만, 그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는 빈민굴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도 Calcutta의 가난은,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을 할수 없는그런 가난 입니다. 제가 동남아나 아프리카 그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가난을 인도의 Calcutta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도 목격을 했습니다. Missionaries of Charity 선교 단체에는 세계 수많은 곳에서 자원 봉사 하러 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빈민굴에 가서 음식도 해 주고, 어린이들과 놀아도 주고, clinic에서 병자들을 치료도 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또 사람들을 목욕시키는 일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몸에는, 상처들을 치료하지 않아서 벌레들 – 구더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길에서 나오는 열기, 말로 표현할수 없는 더러운 환경, 사람들의 냄새 – 이런것들 때문에, 10분도 있기 힘든 곳에서, 그들은 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며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평소에 즐겨 하시던 일이 병든 환자들을 목역 시키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사람들을 씻기 시면서, 수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예수님, 오늘 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한번, 두번, 세번… 그렇게 목욕 시켜주는 사람들을 세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에게 있어서, 또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Calcutta의 빈민굴은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이 된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며는 저주받은 땅이고, 지옥같은 곳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행복의 땅이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장소인 것이지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곳에서도 행복해 질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그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상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음 때, -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수 있다고 하는 말씀 입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방법 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수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산교사로 사역 하셨던 김형익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신던 중에 사모님이 몸이 좋지 않으셔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 사모님의 몸이 아픈 경험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갑자기 큰 걱정이, 시험이 오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과 두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생겨 죽으면, 또 내 wife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들은 누가 돌보고, 이 아이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이 불쌍한 아이들을 누가 돌보고 길러줄수 있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목사님은 두렵고 슬픈 마음 가지고 한동안 지냈게 됐습니다. 그 걱정이 너무 심해져서, 목사님은 밤에 잠도 잘 못자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짐을 마음 속에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어느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목사님 마음에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최선이고 언제나 완전하다.” –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선이고 언제나 완전하시다.

이런 말씀을 마음 속에 듣고, 김형익 목사님이 “아멘” 하면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 드리셨어요. 만약에, 나나 내 아내가 일찍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없으면, 아이들이 힘이든 시간을 보낼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또는 지혜가 모자라서 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선이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김 목사님은, 기도 중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니까, 목사님은 자기 어깨에 메고 있던 큰 짐을 내려놓는 체험을 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질수 있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다시 기쁨이 생기고 걱정과 슬픔 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런 목사님의 경험이 책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선이고 언제나 완전 하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 하실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믿음의 기적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교우님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 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돌아 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침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행복해 질수 있는 사람들 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니다. 어려움과 시련 중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매달리면,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 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많큼 행복해 질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적게 믿으면 적은 행복이, 많이 믿으면 많은 행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 합니다.